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순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특화도시 만들기' 본격 돌입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환경·정보·서비스 실현



순천시는 최근 시에서 발주한 사업관련 설계 용역사, 시공사 및 관내 건축·설계사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순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완료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특화도시 만들기'에 돌입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배리어프리(무장애) 개념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으로 나이, 신체 크기, 장애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환경·정보·서비스를 실현하는 방법론이다.

이번 교육은 민선 7기 허석 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인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모두가 편하게 생활하는 순천!' 실현을 위해 공공부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순천시는 우선 CGV 극장에서 구 기업은행까지 시민로 약 500m를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올해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와 신봉현 과장은 "앞으로 법제화를 통해 순천시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사유시설물 등 사업 전반에 순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 할 계획으로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편하며 공동체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함평군,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공급한다

함평군은 8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나윤수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와 올해 처음 추진되는 비유전자 조작(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의 지원 단가 및 대상, 공급업체 선정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심의결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대상에는 44개교 3,189명이 의결됐으며 공급업체로는 ▲함평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매일식품 ▲자연이야기 ▲함평축협하나로마트 ▲함평농협하나로마트 등 5개 업체가 최종 확정됐다.

군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하게 되고 그 비용을 전담도가 18%, 군이 42%, 학교에서 40%를 부담하게 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Non-GMO 식재료 지원 사업도 이날 심의회를 통해 확정됐다.

함평=김광훈 기자

광양시, '스마일 실버마크' 제작 보급

고령 운전자 사고예방

광양시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 차량 식별용 표준형 실버마크 '스마일 실버'를 제작 보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의 실버마크들이 전국적으로 혼재돼 있어 효율성이 낮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표준안인 통일된 실버마크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보급하는 스마일 실버는 차량의 앞쪽과 뒤쪽에 부착하는 실버마크 두 종류로 제작돼 세트로 지역 노인회와 노인복지회관 등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 대상으로 우선 제공될 예정이다.

운전석 앞 유리에 부착하는 스마일 실버마크는 운전자 및 관련 기관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정삼각형 모양으로 형상화했다.

또 차량 뒤쪽 유리에 부착하는

스마일 실버 캐릭터는 남녀 고령자의 모습과 '한 번 더 배려와 양보를 한다'는 협포를 의미하며, 운전자의 적극적인 양보와 배려·소통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실버마크를 부착한 고령 운전자의 차량이 배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구영 교통과장은 "배려와 양보의 문화를 확산하여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감소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삼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광양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605건으로 사망 14명, 부상 947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은 77건에 사망 4명, 부상 111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광양=김승호 기자

구례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방지 전문교육·훈련



구례군은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강사를 초청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3명을 대상으로 산불에 대한 이론교육

및 산불진화장비를 활용한 진화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영농준비철을 맞아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산불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산불방지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마련됐다.

첫째날에는 산불의 기본지식, 산불예방·진화 및 대처방법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둘째날에는 봉성산 등산로에서 진화에 필요한 각종 장비 활용법과 뒷불 정리 요령 등 실제 산불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이 진행되었다.

군 관계자는 "산불진화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순천시,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시민불편 해소에 노력

최근 고농도미세먼지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연일 시행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불편과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순천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점검하는 등 단계적인 대기질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정보 알리시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난 12월 5만2천개의 미세먼지마스크를 관내 어린이집 250개소와 노인요양시설 33개소에 보급·비치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신속히 착용토록 안내하고, 3월중도 7만배를 추가 구입해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순천시에서는 장기대책으로 '교통분야에서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음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약 5,000대의 노후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할 계획이며,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LPG화물차 보급 등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기,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 강화를 통해 현장에서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고 가정용 노후경유보일러의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산업·생활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 강화를 통해 현장에서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고 가정용 노후경유보일러의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산업·생활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완료하고 실내 공기질

진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순천시 관내에는 정전 등 5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중이며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자동·측정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확인방법은 핸드폰에 '우리동네대기질' 어플을 설치하면 우리지역의 현재 대기질과 예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생태환경과 김태성 과장은 "몇 달간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저감조치 발령시 언론보도 등을 참고하여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등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차량2부제에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농가소득 10% 향상 위한 강소농 교육 실시

오는 11월 23일까지 경영개선 선도농업인 양성



광양시가 농가소득 10% 증대를 위해 경영개선 교육 실시로 자율적 경영실현이 가능한 '강소농(強小農)'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일 농업인 교육관에서 2019 강소농으로 선정

된 38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강소농 개강식 및 기본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기본교육은 국내 농업트렌드와 2019 전망,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강소농의 역할, 강소농 사업의 이해, 자율모임체 성공사례 소개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농업경영체에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강소농사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적으로 다뤘다.

이은희 식량작물팀장은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교육을 통해 자립능력 향상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9 강소농 교육은 기본, 심화, 후속 교육의 단계별 과정으로 구성돼 농가경영진단과 마케팅, 농업인이 알아야 할 사무지식, 경영기량 향상 방법, 농장컨셉 디자인, 농식품 포장전략 등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운영된다.

아울러 자율모임체 활동 지원 및 강소농 민간전문가들의 전문 컨설팅으로 교육 효과를 제고하여 농업경영체들이 비전을 설정하고 자립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번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불합치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